

## 한우

### 전국한우협회 제7대 회장, 이강우 전 부산·경남도지회장 선출 제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 강성기 위원장 재선

전국한우협회 제7대 회장에 이강우 전 부산·경남도지회장이 선출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2월 27일 2013년 정기총회를 열어 예산 및 결산안을 승인하고 전임 회장의 사퇴로 인해 공석이 된 중앙회장직에 대의원 만장일치로 이강우 후보를 추대했다.

이강우 회장은 회장 선출 이후 취임사에서 “한우산업이 가장 어려운 이때에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면서 “오직 한우산업과 한우협회만 생각하고 회장직에 출마를 했는데,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대로 중앙회장이 된 만큼 앞으로 우리 한우산업과 협회의 화합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우 회장은 선출 직후 조위필 전 충북도지회장을 부회장으로 지명하고 한우산업을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에 강성기 위원장이 재선출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대의원회를 열고 단일 후보로 출마한 강성기 위원장을 제3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 한돈

### 한돈농가 희망 프로젝트, 대형마트 한돈웰빙부위 대대적인 할인 행사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이병모 위원장)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유통·하나로마트와 함께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돈농가 희망 프로젝트, 한돈이 드리는 7일간의 선물’ 대형마트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형마트 가격할인 행사는 지속적인 돈가 하락으로 국내 한돈 농가가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한돈 소비 촉진을 위해 대형마트들과 함께 기획하게 됐다.

‘한돈이 드리는 7일간의 선물’ 대형마트 가격할인 행사는 이마트(제주점 제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25개 점)의 전국매장에서 동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등심, 뒷다리살 등 한돈 웰빙부위를 20%에서 마트 제휴 카드 할인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일주일간 구매할 수 있었고, 특히 제휴 카드 할

인 적용시 뒷다리살 최저 280원(100g)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었다. (단, 유통사별 행사 제품 및 가격, 카드할인율 상이)

이병모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속되는 저돈가 상황으로 한돈농가가 문을 닫는다면 국내식량 안보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와 국내 식량 안보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의 많은 한돈 애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양계

### 닭고기자조금 수당 거출금액 2원 인상 추가 인상금액 계열사부담 불가피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이 현행 육계 수당 3원에서 5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2월 7일 서울 서초동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13년 제2차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조금 거출금 인상과 육용(원)종계 감축 사업 등 2013년 자조금예산안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위원회는 올해 자조금 사업이 총 47억이지만 육용(원)종계감축 사업에 필요한 30억 재원을 사용 시 올해 자조금사업중 축소 또는 폐지사업이 많아 지난번 회의에서 자조금 변경안이 부결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관리위원회는 자조금 거출금액을 현행 육계 수당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하고 약 18억원의 추가 자조금을 조성해 올해 총 60억의 자조금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과 관련해 계열화업체와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포함한 5원에 대해 계열사와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거출금 인상에 따른 농가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농식품부의 승인이 이뤄진 육용(원)종계감축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양계협회와 계육협회는 지난번 관리위원회에서 감축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 보고할 것을 주문한 것에 따라 35~45주령의 종계에 대해 1차 60만수, 2차 40만수 등 총 100만수의 감축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는 추진계획안을 제시해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홍재 위원장은 “조만간 계열사 대표들을 만나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거출금액이 인상돼 자조금의 규모도 커지는 만큼 자조금의 사용에 대해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흥재 위원장은 “이번 육용(원)종계감축 사업의 시행을 위해 양계협회와 계육협회가 추진계획(안)을 큰 테두리 안에서 합의를 본 만큼 조만간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육용종계감축(안)과 자조금 거출금액 인상이 관리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두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수용 기자 2013. 02. 15



## 한국낙농육우협회 제15대 회장, 손정렬 후보 당선 ‘대통합, 위기극복, 협회 주도의 변화와 개혁’을 포부로 밝혀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선거에서 손정렬 후보(만 50세, 경기 가평)가 당선되어, 3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제15대 집행부를 이끌게 되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21일(목)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예·결산 승인 및 제15대 집행부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날 정총에서 최대 관심사는 제4호 안건순서에서 진행된 임원 선임이었다. 협회 회장 경선에서 기호 1번 이승호 후보와 기호 2번 손정렬 후보가 경합을 벌인 결과, 손정렬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역별 안배에 따라 도(연합)지회별로 선임된 협회 임원을 인준하였다.



또한 이날 정총에서는 △2012년도 사업결산, △2013년도 사업예산, △정관개정(감사임기 2년에서 3년으로 조정)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13년도 협회사업 규모는 18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낙농정책연구소 운영, 국산우유 인증사업 추진, 낙농인의 날 제정 및 행사 개최,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주관, 육우의무자조금 추진 등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도 포함되었다.

특히 협회 대의원들은 올해 현안사항으로,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원유가격연동제 연착륙, △우유 송아지가격 안정대책 마련,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낙농부문 대책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강력 주문하였다.

마지막 순서에서, 대의원들은 3개항 대정부 건의문(낙농육우 산업 안정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 실현, 우수수급 및 육우산업 안정 대책, 비용절감 및 환경·분뇨대책) 및 4개항의 결의문(고품질 우유·육우

생산, 친환경 목장경영 및 우유·육우소비 확대 선도, 낙농가 대통합 및 자주성 확보로 강인한 협회 실현, 농축산업 및 국가발전 주도)을 채택하였다.

한편, 이날 협회장으로 당선된 손정렬 후보는 당선 소감에서 “낙농육우산업 발전과 협회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승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낙농육우농가 대통합, 위기 극복, 협회 주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전국 농가의 대의를 모아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양봉

### 양봉협회 정총, 양봉산업 육성·지원법 마련

양봉산업 육성과 양봉농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을 근거로 생산, 유통, 방역, 양봉산물 품질향상, 양봉농가 지원 등을 실시해 우리나라 양봉산업 육성대책과 농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학계, 협회, 조합, 농협 등과 함께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에 국회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환 한국양봉협회장은 “양봉인들이 안정적으로 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며 “생산에서부터 육성까지 농가 현실에 맞게 회원농가 위주로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협회는 지난해 과잉 생산된 벌꿀 재고처리와 국내 양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국내 경기침체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저가 수입꿀에 대응, 소비자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벌꿀 품질등급제(정품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 벌꿀 품질등급제 기준에 따르면 탄소동위원소비 기준 아카시아는 -23.5%이하, 잡화는 -22%이하에서만 정품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인증제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더불어 벌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소비촉진과 판매 증대를 위해 자조금 거출 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농가회원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3만원씩이지만 벌꿀 수매업체는 드럼당 2만원씩 거출하게 된다.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13. 02. 18